

세계화 속의 성의 격차*

Gender Gap in Globalization of Korea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부교수 김 성 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trend of gender gap within a globalization context from 1993 to 2003 on the perspective of feminists who contend that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women on account of its masculine nature against neo-liberal viewpoint emphasizing economic efficiency and rationality.

As the result of review of statistical and qualitative resources in workforce, it was found that the gender gap has trended toward increasing in some sectors such as flexible labor and high wage jobs, which shows that gender segregation by irrational culture exists in workforce. The evidence to support the neo-liberal viewpoint supposing that the gender discrimination will disappear was also found in sector of wage. The gender gap in wage h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of globalization. The dispute of feminists was partly supported, so it was suggested that the policies for gender empowerment should be enforced to diminish gender gap that would be able to increas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주요어(Key Words) : 성의 격차(gender gap), 성평등(gender equality), 세계화(globalization), 여성의 노동(women's labor)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간의 생존여건을 변화시키면서 보편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가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세계화는 산업화 이후의 인간의 노동과 여가, 교육 등 모든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편에서는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세계경제가 동질화되어 자원이 효율

적으로 배분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경쟁사회가 되어 사회결속력이 파괴되는 등 인간생활이 저하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신현중, 1998; Marin & Schumann, 1998 등).

이처럼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적지 않은 결과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성별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별이 논의되더라도 노동시장의 여성화나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은 특정 현상을 다루고 있거나(유진호, 2002; Lee, 2004 등), 여성의 노동 실태가 조사되고 있을 뿐 (U.N., 1999; UNESCAP, 2005; World Economic Forum, 2005 등) 성평등의 시각에서 세계화가 성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거나 연구한 것은 찾기 어렵다.

세계화가 근거로 삼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론

* 이 논문은 2005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김성희 (E-mail : ksh@sunchon.ac.kr)

에 따르면 노동과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근거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므로 세계화시대에는 문화에 의한 비합리적인 성차별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이래 성평등을 보장하는 법률과 성인지적(gender aware)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완전한 성평등의 시대가 실현되는 것으로 기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체는 성에 대해 중립적(gender-neutral)이므로 불합리한 문화적 불평등이 제도를 통해 제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증가하더라도, 자유주의(liberalism)는 궁극적으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기존의 문화가 이를 대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학자들은 세계화가 가부장적 질서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근본적으로 남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Bishop, 2005). 노동현장에서의 경험적 증거들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IWPR, 2005 등). 가부장적 질서가 소멸된 완전한 성평등 사회가 세계화과정과 더불어 실현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논의와 여성학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 속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성의 격차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영역에서 성의 격차는 신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지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 속에서 여성은 성평등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갖게 될 것인지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며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세계화 속에 내재된 가부장적 전통은 궁극적으로 가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소멸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세계화 속에서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 관련 문헌 고찰

광의적으로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경제적 문화적 통합 등 다 변화를 의미한다.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의 문화가

단일화 하는 과정을 의미하고(Wanier, 2000), 경제적으로는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품 시장·서비스 시장·자본 시장 등 모든 시장이 개방되어 세계경제 거래에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또는 이윤의 극대화와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합리성과 효율성에 두고 경제주체가 세계적 영업활동을 도모해 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신현중, 2000).

이런 세계화 현상에 대해 Ohmae(1995)는 인류는 국경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초국제화(hyperglobalizer)라고 부르는 이러한 관점은 세계화를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 승리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이고 비교우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 비합리적인 문화에 의한 성차별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ishop(2005)은 제 3세계가 성(gender)과 인종, 국적, 피부색 등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것에서 보듯이 세계화에는 효율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가 실현된다고 말하지만 무역은 초국가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는 여전히 정치적 합법성과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논박도 받고 있다(Fukuyama, 1992; Goldblatt 등, 1997). 합리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세계가 단일화 하고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이론과는 다르게 성 및 지역에 따른 편이가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자유방임(laissez-faire) 경제를 지지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과 맥을 같이 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독립적이고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본위의 이익을 취하는 단위(Brodie, 1994 등)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ishop(2005)에 따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여성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규제가 거의 없는 자유방임의 경제에서 여성의 임금은 차별적인 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성학자들은 비판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보는 가부장적 질서는 당연시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여성학자들은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과정에서 어떻게 성차별화된 담론이 이루어지는지는 Hooper(2000)의 언어분석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세계화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남성적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한 경제잡지에서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안마 지역을 '강탈하기 좋을 만큼 잘 성숙한'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고 있다.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는다는 여성학적 견해의 증거는 여러 가지 다른 경험적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U.N. (1999)의 보고에 따르면 임금노동 시장에 취업하는 여성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갖는 기회가 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화는 특히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입 자유화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고용을 촉진시키므로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게 된다(UNRISD, 2005). 무역자유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저렴한 노동을 고용하게 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가진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된다(UNRISD, 2005).

한편 Drucker(2001)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근로자를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전환시키므로 여성에게 지식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전통적으로 힘에 의존 하던 일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여성은 보다 다양한 직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Meng(1996)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이라고 여겨왔던 관리직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특성이라 여겨지던 의사소통, 집단 구성, 상호 연관 맺기와 같은 기술들이 관리직에서 요구되면서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과학 산업 중 정보산업에서도 여성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섬세함과 집중력,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UNRISD, 2005).

이처럼 세계화가 여성에게 새로운 직업과 다양한 직업에서 취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성의 진보를 의미하거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낮은 직업적 지위와 임금의 격차는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듯 세계화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문화적 차별요소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대학여성협회(AAUWEF, 2005)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과 고용이 증대되었어도 미국 대부분의 여성은 교사나 간호사, 비서, 판매관리자와 같은 전통적인 핑크칼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Hawthorne(2004)은 인터넷의 발달은 여성이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므로 매춘이나 가정부 등으로 착취당하기 쉽게 한다고 주장한다. 노성숙(2000)은 세계화시대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되어 성의 식민지화로 남성의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여성의 이미지와 지위를 낮추는 서비스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ishop(2005)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것이 여성의 노동 지위를 낮추는 것으로 여성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Becker(1957)는 경쟁의 심화는 노동시장의 차별을 줄인다고 하였고, Marima & Jorge(2005)은 브라질의 노동시장을 연구하여 자유무역의 증가에 따른 개방성 증가가 노동시장의 차별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방성과 경쟁의 심화가 성차별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게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여성학자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서 취업하기 쉽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하면서 남성들도 여성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단기적이면서 안전성이 낮은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에 더 많이 취업하게 되지만,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는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Bishop, 2005).

세계화 속에서 임금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화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여전히 남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에 정규직 여성의 일 년간 소득은 같은 범주의 남성 소득의 76.5%에 불과하였다. 연소득의 중앙치는 여성의 경우 \$31,223인 반면 남성은 \$40,798이었다(IWPR, 2005).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U.S.General Accounting Office, 2003), 1983년에서 2000년 사이의 임금 격차의 45%는 인적자원이나 노동시간, 직업의 종류, 노동조합 등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Caiazza 등(2004)은 이런 결과는 성차별이 여성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Hawthorne(2004)은 세계화는 특히 빈자에 대한 폭력성을 내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의 빈자 구성율이 높은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의 성의 격차를 조사한 석재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과정에

서 성의 격차는 확대되었고 빈곤은 더욱 여성화되었다. 세계화 속에서 더욱 낮아지는 여성의 직업적 지위와 임금의 격차는 여성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화속에서도 성의 격차는 여성의 지위와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비합리적 문화적 차별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기대 속에서 연구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성학적 견지에서 볼 때 성의 격차는 세계화 속에서도 존재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Scholte(2000)는 세계화는 제도화된 상태가 아닌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라 말한다. Goldblatt 등(1997)은 세계화는 그것이 제도화되는 강도, 정도에 따라 고르지 않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성평등이 세계화와 더불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실현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시점과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성의 격차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세계화의 시기와 연구자료

세계화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대상을 명백히 정의하기 어렵다. 세계화를 상품의 이동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혹은 자본이나 인력의 이동,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기도 한다(김관호, 2003). 세계화를 시대적인 흐름으로 파악하여 제 3의 시대로 사회가 이행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고라고 정의하기도 한다(Waters, 1995).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시대적인 조류로 보고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된 조직과 노동조건의 경향성을 파악한다. 노동시장에서 세계화가 나타내는 경향성은 신자유주의자에 의하면 성 중립적(gender-neutral)이지만,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성차별적이다.

세계화 속의 성차별에 주목하면서 최근 UN의 ESCAP(2005)에서는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정의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2000년대의 개발목표로 삼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불평등 경향 실태를 조사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2005)에서는 각국 여성의 성의 격차를 조사하였고, U.N.(1999)에서는 세계화의 맥락이 여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추세를 알기 위해 각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 성차별 등을 조사하였다. Bishop(2005)은 1980년대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동안의 세계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의 경향성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속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성평등의 경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세계화속의 근로조건의 추세를 조사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자와 여성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계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히스트와 톰슨(Hirst and Thompson, 1996)은 현재의 국제간 무역과 지역적 이동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시대보다 더 적으므로 현재의 국제화를 세계화 경제의 기본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현재의 세계화는 하나의 허구(myth)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러한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제 1차 세계화가 있었고, 현재 경험하는 세계화는 제 2차 세계화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김관호, 2003).

본 연구에서는 IMF국제통화위기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1997년을 전후하여 1993년에서 2003년의 10년간을 세계화의 연구대상 시기로 설정한다. 1997년 이전과 이후의 비교는 세계화가 심화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보여주므로 세계화의 영향을 보다 잘 나타낼 것으로 본다.

연구 자료는 각종 통계자료 및 연구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다. 정부기관, 연구단체 등이 발간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경향을 고찰하고 연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사례연구를 인용한다.

2. 성의 격차 개념과 연구방법

세계기구인 U.N.(2005)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가 출생 시 타고난 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상태의 인간의 사회적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의 격차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가 출생시 타고난 성에 의해 결정되어 나타나는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은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동일한 기회를 갖는 상태로 남녀가 동일한 비를 갖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즉 남성의 수와 비율을 100.0으로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여성의 수와 비율의 비가 100.0일 때를 성평등한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성의 격차는 100.0으로부터의 차이 즉 평등선으로부터 이탈한 정도로 표시한다. 100.0 이하에서 성비가 증가하면 성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100.0 이상에서 성비가 증가하면 성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비판이 집중되는 영역은 임금, 고임금 직종에서의 취업, 경제활동참가, 비정규직 취업에서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파악하여 성의 격차 정도를 검토한다.

각 영역은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서로 관련성이 매우 깊으므로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은 임금과 관련이 있고 임금은 취업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각 영역에 대해 같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영역별 격차의 순위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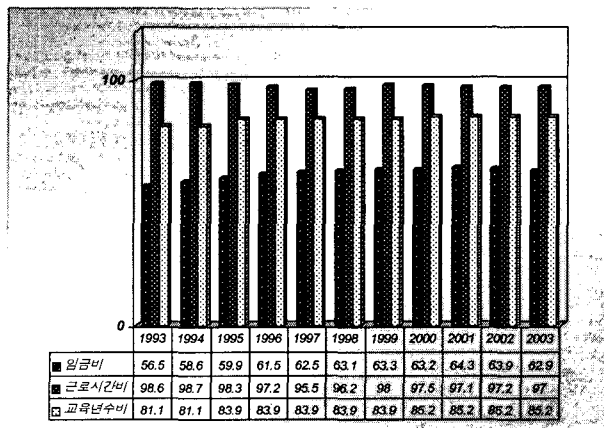
IV. 세계화 속의 성의 격차 분석

1. 세계화 속의 임금에서의 성의 격차

신자유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은 개인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결정되게 되므로 문화적 성차별에 의한 여성의 임금은 개선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격차는 좁혀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은 여성학자들이 비판하듯이 가부장적 질서를 당연시하므로 임금은 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1993년 이후 200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10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임금 비는 <표 1>에서 보듯이 1993년 56.5에서 2003년 62.9로 커져 전체적으로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격차의 범위는 좀 더 커질 것이지만 남녀 간의 격차는 전체적으로 점차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교육연수의 비
(남성=100.0, 평등선=100.0)



원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교육연수의 성비=여성의 평균 교육연수/남성의 평균 교육연수

그러나 2003년에도 임금에 있어 성비는 62.9로 37.1의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세계화로 인해 경제위기 에 직면하였던 1997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경제위기 전보다 후에 남녀 간의 임금차이가 더 적은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임금에서 성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효율성과 관련된 교육연수의 비는 <표 1>에서 보듯이 계속 증가해왔다. 여성의 교육연수는 1990년 8.6년에서 2000년 9.8년으로 증가하였고 남녀 간 교육연수의 차이도 1990년 2.0년에서 2000년 1.7년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KOSIS). 교육수준에서의 성의 격차는 2003년에 14.8이었으나 그 차이는 임금의 차이보다 크지 않았다.

한편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의 양과 관련된 근로시간에서도 남녀 간의 격차는 임금 격차만큼 크지 않았다(<표 1>). 2003년의 경우 남자의 노동시간을 100.0으로 볼 때 여자는 97.0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1993년에서 2003년의 10년 사이에도 노동시간은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이 평등선에 근접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임금의 결정은 성이 아닌 개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리적이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교육연수에서 남녀의 격차는 14.8, 근로시간에서의 성의 격차는 3.0에 지나지 않았는데 임금에서 성의 격차는 37.1의 큰 차이를 보였다. 임금을 결정하는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에서보다 임금에서 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Caiazza 등(2004)이 미국의 사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별이 여성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UNRISD(2005)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이 특정 노동 시장에 집중되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이거나 기업이 임금을 낮추려는 강한 압력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성인력을 재배치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세계화 속의 직종 및 산업에서의 성의 격차

1) 직종에서의 성의 격차

Drucker(2001)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근로자를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전환시킨다.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던 많은 일들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어,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에서 1999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남성취업자는 기술공 및 전문가 직종에서 증가를 보였고 여성취업자는 기술공 및 전문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

자 직종에서 증가를 보였다.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 모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단순노무직에서 증가를 보였다<표 2>.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남녀 모두는 대체로 육체노동자로서보다 지식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은 기능 및 기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률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종으로 알려진 서비스직에서의 비율이 높다. 1993년과 2003년 사이 거의 계속적으로 여성취업자가 증가해온 직종은 서비스직이었다. 2003년만 보더라도 남성은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에서 취업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서비스직에서 취업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볼 때도 2003년에 남성보다 여성 취업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 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었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의 여성의 취업 변화를 보면 가사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는 70.0%에서 71.4%로,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61.3%에서 64.4%의 증가를 보였다(통계청 KOSIS). 미국대학여성협회(AAUWEF)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여성은 교육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산업인 핑크칼라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 공식적 통계로 드러나지 않으나 세계화시대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직종은 성매매 업이다. 성매매, 매춘 등의 서비스 산업은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통신매체가 발달하고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면서 여성 종사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2> 직종 및 성별에 따른 취업자 비

연도	성별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전문 가	기술공 및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1993	남	2.6	3.0	5.2	6.8	9.1	6.6	11.1	10.0	5.4	59.7
	여	0.2	1.7	2.7	6.0	11.9	5.5	3.7	3.0	5.6	40.3
1994	남	2.5	2.9	5.9	6.2	9.2	6.2	11.0	10.1	5.5	59.6
	여	0.1	1.3	2.9	6.3	12.6	5.6	2.9	3.0	5.7	40.4
1995	남	2.4	3.1	6.3	6.1	9.0	5.8	12.1	9.3	5.4	59.5
	여	0.1	1.7	2.8	6.4	13.0	5.2	3.9	1.5	5.8	40.5
1996	남	2.4	3.1	6.6	6.1	9.1	5.6	11.9	9.2	5.3	59.2
	여	0.1	2.8	3.0	6.5	13.5	5.1	3.7	1.4	5.6	40.8
1997	남	2.3	3.1	7.1	5.8	9.0	5.3	11.7	9.1	5.3	58.8
	여	0.1	1.6	3.3	6.7	14.1	4.9	3.4	1.4	5.7	41.2
1998	남	2.3	3.7	7.3	6.5	9.6	6.0	9.8	9.2	5.0	59.4
	여	0.1	1.8	3.5	5.9	14.1	5.4	3.0	1.4	5.0	40.6
1999	남	2.2	3.5	8.0	5.6	9.4	5.8	9.7	9.1	5.8	58.9
	여	0.1	1.8	3.6	5.8	14.3	4.9	3.2	1.4	6.1	41.1
2000	남	2.1	3.7	7.0	5.8	4.1	6.0	9.8	9.4	5.3	58.6
	여	0.1	2.9	2.8	6.1	8.6	7.3	2.9	1.4	4.6	41.4
2001	남	2.3	4.0	6.7	6.0	3.9	6.1	9.5	9.4	5.3	58.3
	여	0.1	2.9	2.9	6.4	8.7	7.5	2.7	1.4	4.6	41.7
2002	남	2.4	4.1	6.5	6.1	4.0	6.0	9.7	9.3	5.4	58.4
	여	0.2	3.0	3.0	6.6	8.8	7.3	2.4	1.4	4.8	41.6
2003	남	2.5	4.2	6.4	7.6	4.0	5.9	8.9	9.4	5.5	58.9
	여	0.2	3.5	3.3	6.8	8.4	7.0	2.0	1.4	5.0	41.1

원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nos.go.kr>.

*2000년 이후는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분리됨

경찰백서(2005)에 따르면 2001 청소년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건수는 1255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1270건, 2003년에는 1349건 2004년에는 1593건으로 증가하였다(사이버경찰청). 중앙일보(2005, 2. 16)에 따르면 성을 판 청소년 여성의 82%는 인터넷을 통해 상대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Hawthorne(2004)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이용은 여성이 남성에게 용이하게 접근하는 통로를 제공하여 성매매 산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과정에서 여성은 지식근로자로서 관리직 및 사무직 등에서 새로운 취업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와 관련된 비교적 지위가 낮은 일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학자들의 비판처럼 세계화는 여성에게 진보의 기회를 제공하지만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고임금 직종에서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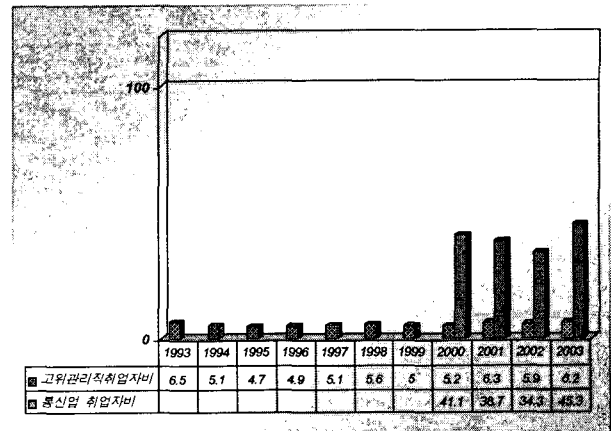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하는 여성의 유연하고 섬세한 특성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관리행정가의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70%를 넘지 못하도록 2003년부터 실시해온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고위관리직에서 여성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도 아직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위직 여성 공직자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중앙일보, 2005. 2. 21).

2003년 조사된 직종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이었다. 2003년 직업의 평균 임금을 보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2,92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전문직으로 2,230천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892천원, 다음이 사무종사자 1,530천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477천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456천원, 판매종사자 1,388천원, 서비스종사자 1,182천원, 단순노무종사자 970천원 순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통계청 KOSIS).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에서 여성의 취업자 수는 1993년 32천명에서 2003년 35천명으로 10년 동안 약간 증가하였다(통계청 KOSIS). 그러나 남성의 취업자에 대한 비로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비는 1993년 6.5에서 2003년 6.2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표 3>.

<표 3> 여성의 남성에 대한 고소득 직종 및 산업에서의 비 (남성=100.0, 평등선=100.0)



원자료: 통계청 KOSIS . <http://kosis.nso.go.kr>
취업자비=여성취업자수/남성취업자수

섬세함과 집중력 차분한 정밀성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산업으로 꼽히는 통신업도 2003년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는 통신업의 임금 비는 전 산업의 평균임금을 100.0으로 했을 때 164.5로 가장 높았다. 통신업에 취업하는 여성 취업자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통신업 전체취업자의 29.2%에서 31.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KOSIS). 성비로 보면 2000년 41.1에서 2003년 45.3으로 증가하여 남녀 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표 3>. 전자통신을 매개로하는 세계화는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주요 산업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자통신 산업에 진출하는 여성취업자는 남성의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2003년 통신업에 취업한 여성취업자는 78천명으로 남성취업자 172천명의 45.3%에 불과하였다<표 3>. 2004년 전자정보통신 IT업종에서의 40개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은 21.4%, 남성의 비율은 78.6%이었다(중앙일보, 2005. 2. 21). 여성대졸자는 전체 대졸자의 49%를 차지하여 학력에서 남성과 여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고임금의 첨단산업에서 여성의 취업은 남성보다 매우 적어 현저한 성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취업한 교육 서비스업에서의 임금수준은 127.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93.3, 숙박 및 음식점 업은 72.5로 통신업의 164.5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통계청 KOSIS). 산업별로 볼 때도 여성은 여전히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직종 및 산업분야가 특별히 남성적인 육체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성의 의사소통 기술과 섬세함을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하는 남성중심의 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보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문미경·김혜영, 2004)에 따르면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38.5%가 가사, 육아, 노인부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에 31.2%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보직 배치, 승진의 불이익에 10.6%, 야근, 출장 등 업무과중에 10.0%가 어려움을 겪었다. 보직 배치 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가에는 86.9%가 그렇다고 하면서도 승진에 유리한 부서로 옮기고 싶은가에는 '그렇지 않다'에 47.6%가 응답하였다.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된 문제에 승진에 유리한 부서보다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원하였다.

개인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여성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한 고위직 과장이 "남성성을 가장하기에 너무 힘들다(중앙일보, 2005. 2. 21)"라고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제의 실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법적 장치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계속 강화해가고 있으나 남성우주의 직업문화는 여성에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학자들이 예측하듯이 세계화가 남성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가장장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한 고소득 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은 세계화시대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고용처우에서의 격차

정부에서는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모성보호 관련법도 정비하여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성주의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운영은 결코 성 중립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2년 대법원에서는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던 농협중앙회 사건에 대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오정진, 2003).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듯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남성우주의 문화가 정부규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고용상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의 상담을 분석한 것을 보면(오정진 2003), 산전후 휴가 사용 및 휴가 후 복지 문제 등과 관련된 비정규직 모성보호 상담 건수는 2002년에 2001년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해고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2001년 22%에서 2002년 54.8%로 증가하였다. 성차별적 승진이나 인사상의 차별 상담도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3명 중 1명이 임금체불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였다.

고용차별과 더불어 직장 내 성차별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정진, 2003). 2002년 노동부가 발표한 신고한 직장 성희롱 사건은 92건으로 2001년 48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2002년 한국여성민우회의 여성노동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36.9%가 직장 내 성폭력 상담이었고 이는 4·5년 전의 한 해 상담 량과 맞먹는 증가한 수치였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1) 보고서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신청한 신청인의 99%가 여성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세계화시대에 여성의 근로조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세계화 속의 경제활동참가에서의 성의 격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화시대에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

1993년에서 2003년의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93년 47.1%에서 2003년 49.9%로 2.8% 증가하였다(통계청 KOSIS).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기간 75.7%에서 74.6%로 1.1%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보장이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에게서 증가하고 있다.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3년 26.1%에서 2003년에는 24.7로 1.4% 감소한 데 비해 기혼 여성은 1993년 73.9%에서 2003년 75.3%로 1.4% 증가하였다(통계청 KOSIS).

이처럼 기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 가정이 증가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3년 0.281에서 1997년 0.283,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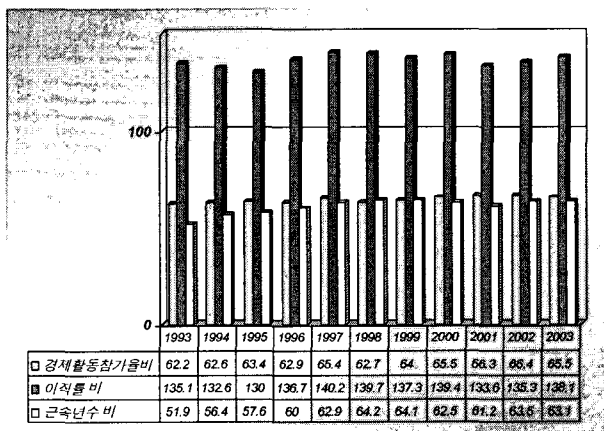
0.306으로 상승하였다. Marin & Schumann(1998)은 세계화 시대에는 부자와 빈자가 20:80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빈자가 증가하면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주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성의 격차는 1993년에 62.2에서 2003년에는 65.5로 증가하였다<표 4>. 남성과 여성 간에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3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의 성의 격차는 34.5였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성이 낮은 곳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직률을 보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이직률 비는 2003년 138.1로 남성보다 매우 높다. 1993년 135.1과 비교해 2003년에는 성비가 더 커지고 있어 여성의 취업 안정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특히 1997년에 경제위기에 여성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쟁이 심해지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해고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의 경제활동에 비해 안정성이 낮은 것은 근속년수에서도 볼 수 있다. 2003년 여성의 근속년수 비는 남성의 63.1로 매우 높은 39.9의 격차를 보였다. 1993년의 51.9에 비교해 근속년수에서 성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성은 남성보다 이직률이 높은 안정성이 낮은 단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이직률, 근속년수의 비
(남성=100.0, 평등선=100.0)



원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경제활동참가율 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남성경제활동참가율

4. 세계화 속의 비정규직에서의 성의 격차

세계화과정에서 기업은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서 고용을 증가시킨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주로 비정규직에 취업하였지만 세계화시대에는 남성도 비정규직에 취업한다. 그러나 여성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표 5>를 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나는 유연화 추세를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93년과 2003년 사이 상용직 비율은 7.1% 감소하였고 임시직은 6.5% 증가하였으며 일용직은 0.5% 증가하였다. 남성도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차이

	여성임금근로자					남성임금근로자				
	근로자수(천명)	상용(%)	임시(%)	일용(%)	계(%)	근로자수(천명)	상용(%)	임시(%)	일용(%)	계(%)
1993	4516	43.6	38.9	17.5	100.0	7427	68.3	19.3	12.5	100.0
1994	4755	42.3	40.7	17.0	100.0	7724	67.5	19.9	12.6	100.0
1995	4924	42.8	40.7	16.5	100.0	7975	67.6	20.0	12.4	100.0
1996	5096	41.1	43.0	15.9	100.0	8104	66.7	21.2	12.1	100.0
1997	5259	38.4	45.1	16.5	100.0	8145	64.6	22.9	12.5	100.0
1998	4745	34.7	47.6	17.7	100.0	7551	64.7	23.6	11.7	100.0
1999	5025	31.1	45.6	23.3	100.0	7639	59.9	25.7	14.4	100.0
2000	5397	31.2	46.2	22.6	100.0	7963	59.2	26.5	14.3	100.0
2001	5609	33.2	46.2	20.6	100.0	8050	60.3	26.5	13.2	100.0
2002	5857	33.6	45.8	20.6	100.0	8325	58.8	26.5	14.7	100.0
2003	5970	35.3	47.3	17.4	100.0	8432	61.2	25.8	1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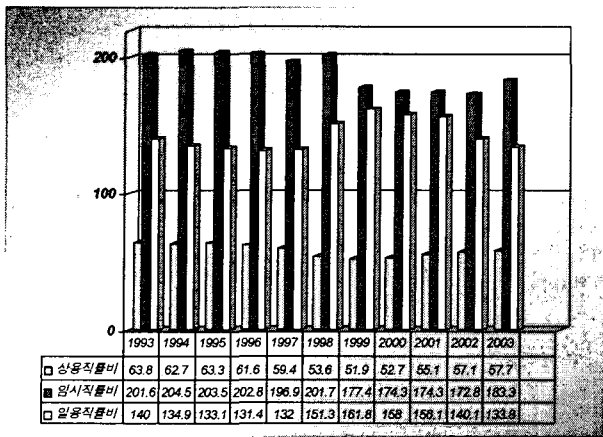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은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불리하게 나타난다. 1993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3%감소하였지만 남성은 7.1%의 감소를 보였다. 임시직 비율은 여성의 경우 8.4% 증가하였지만 남성은 6.5%의 증가를 보였다. 일용직 비율은 여성이 0.4%의 증가를 보였으나 남성은 0.6%의 증가를 보였다. 일용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증가하였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

용고용의 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임시직에서는 더 크게 증가하여 여성이 불리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를 보면 <표 6>, 종사상의 지위가 안정된 상용직에서는 1993년 남성이 100.0으로 고용될 때 여성은 68.3의 비로 고용되었고 2003년에는 57.7의 비로 고용되었다. 남녀 모두 상용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하더라도 상용직에서 성의 격차는 커지고 있어 여성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사상 지위의 비
(남성=100.0, 평등선=100.0)



원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상용직률 비=여성 상용근로자 비율/남성 상용근로자 비율
 임시직률 비=여성 임시근로자 비율/남성 임시근로자 비율
 일용직률 비=여성 일용근로자 비율/남성 일용근로자 비율

한편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갖는 임시직에서의 성비는 1993년 201.6에서 2003년 183.3으로 크게 줄어들어 남녀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0년 동안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는 계속 100.0을 넘어 20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남성에 비해 임시직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은 성의 격차를 볼 수 있다.

일용직에서도 성비는 1993년에서 2003년 사이 100.0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성비가 1993년 140.0에서 1999년 161.8로 경제위기시에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계속 여성의 고용이 남성보다 높은 고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세계화 기간 동안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가 100.0을 넘어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남성보다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증가하면 여성의 비정규직이 고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성은 더욱 불리한 노동조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불리한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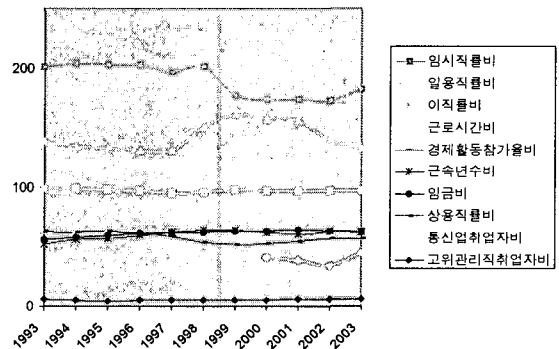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평등의 전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다(오정진, 2003)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70.8%가 고용불안을 호소하였고, 부당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과 관련된 상담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였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화하면서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시그네틱스는 2002년 여성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고 비정규직화를 실시하는 등 심각하게 여성노동권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정진, 2003).

최근에는 특수직업인 학습지 상담교사, 임시 학원 강사,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와 같은 새로운 임시직·일용직에서 여성의 취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임시·일용직 고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조차 이들과 고용주간에 실질적 종속관계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오정진, 2003). 세계화시대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의 여성화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세계화 속의 성의 격차 범위와 정도

1) 성비의 범위



<그림 1> 노동시장에서의 성비의 범위와 정도

<그림 1>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의 격차는 영역에 따라 다르며 그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시직에서는 성비가 200을 상회하였고, 고위관리직에서는 아주 낮아 5.0을 상회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세계화가 성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에 따라 다르므로 성의 격차에 대한 대책과 연구는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2) 평등선으로부터의 격차

100.0을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갖는 평등선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가장 평등하게 접근해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었다<표 7>.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의 격차를 보였다. 2003년의 경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비가 100.0을 넘는 부분은 임시직을 비, 일용직을 비, 이직률 비에서였다 임시직과 일용직, 이직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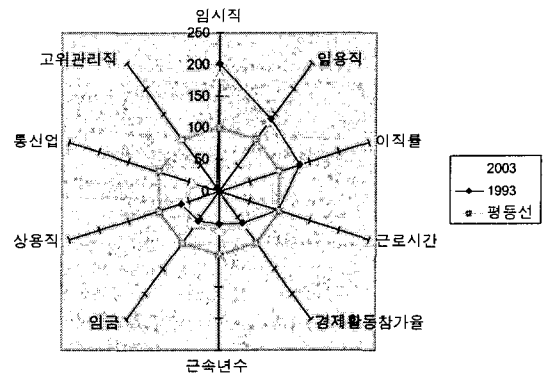
<표 7> 노동시장에서의 성의 격차

영역	2003의 성비	100.0(평등선)과의 차이	격차의 순위
임시직률 비	172.8	+72.8	2
일용직률 비	140.11	+40.11	5
이직률 비	135.3	+35.3	8
근로시간 비	97.2	-2.8	10
경제활동참가율 비	66.3	-33.7	9
근속년수 비	63.5	-36.5	7
임금 비	62.9	-37.1	6
상용직률 비	57.1	-42.9	4
통신업취업자비	34.3	-65.7	3
고위관리직취업자비	6.3	-93.7	1

한편 비가 100.0보다 낮은 부분은 근로시간 비, 경제활동참가율 비, 근속년수 비, 임금 비, 상용직률 비, 통신업 취업자비, 고위관리직취업자비에서였다. 이들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높거나 수가 많았다. 주로 비정규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나 비율이 높았고, 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평등선에서 가장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은 고위관리직에의 취업으로 93.7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임시직 근로자율비도 매우 높은 72.8의 차이를 보였다. 성평등을 위한 대책이 고위관리직 등의 고임금 직업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임시직 등 비정규직 영역에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차이를 보인 것은 통신업에서의 취업자비, 상용직률 비, 일용직률 비, 임금 비, 근속년수 비, 이직률 비, 경제활동참가율 비, 근로시간 비의 순이었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의 영역별 격차는 <그림 2>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평등선으로부터 많은 영역에서 이탈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3년을 1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했을 때 영역별 불평등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평등선과 성의 격차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고용율이 매우 높고 고임금직에서 고용율이 매우 낮은 상황, 근로시간은 남성과 비슷하나 임금이나 근속년수, 상용직 취업에서는 남성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은 세계화 속에서 큰 변화 없이 10년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결과는 세계화가 남성적이라는 여성학자의 견해를 지지하게 하기도 하지만, Scholte(2000)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화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진행 중이어서 성의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세계화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성이 주된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신자유주의가 가정하는 것처럼 세계화가 성에 대해 중립적으로 진행되어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성의 격차는 계속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는지 성평등에 초점을 두고 그 경향성을 조사하였다.

성평등의 정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의 격차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다양한 통계자료 및 사례를 통해 세계화의 기간인 1993년에서 2003년 동안 임금과 직종 및 산업, 경제활동참가, 비정규직에서의 성의 격차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1993년에서 2003년의 세계화 시기 동안 임금에 있어 성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임시직에서도 성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용직, 이직률, 임시직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고 고소득 직종과 산업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심한 불평등 상태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평등 상태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에서 뿐이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근속년수, 임금, 상용근로직 취업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영역에서였고 대체로 안정된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노동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의 격차는 비교적 큰 범위로 존재하였고 이런 격차는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세계화가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부장적 질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화가 근거하는 개인의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문화에 의한 성차별은 비합리적이므로 세계화의 진행은 성차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증가되고 있어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을 확신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은 여성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성차별적인 상황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라 세계화가 성평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의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낙관적 견해가 될 수 있다.

세계화 과정 속에서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은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지만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종사상의 지위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정한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노동시장은 더욱 임시직, 파트타임직, 비정규직 등으로 유연해질 전망이다. 한편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어 안정된 정규직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지위와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빈곤의 여성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정 내 여성의 평등한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세계화 속의 성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지금까지는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세계화 속의 불평등은 기회와 권리의 양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갖지만 낮은 지위와 불리한 조건을 차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기회와 권리의 질을 균등하게 하는 것에 대비책의 역점이 주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비정규직과 관련된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안정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 친화적(women-friendly) 대비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소득 직종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들 영역에서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성차별의 문제를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과 정책에 의존해왔지만 세계화시대의 성차별 대비책은 여성의 자치적인 사회적 연대와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정밀한 검증을 위한 계량화 작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집 수 일 : 2005년 11월 12일

□ 심 사 일 : 2005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4월 24일

【참 고 문 헌】

- 김관호(2003). **세계화와 글로벌경제**. 서울: 박영사.
- 노성숙(2000). 세계화와 여성. **철학과 현실**, 47, 111-127.
- 문미경·김혜영(2004).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보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사이버경찰청(2005).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6(2), 167-194.
- 신현중(1998).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산경연구 제6집**, 45-72.
- 신현중(2000). 20세기형 세계화와 21세기형 세계화의 비교 분석.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27-550.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1). 2000년도 연차보고서.
- 오정진(2003). **여성노동 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중앙일보. 2005. 2. 21.

- 중앙일보. 2005. 2. 16.
- 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http://nso.go.kr>
- AAUWEF(2005). *Public perceptions of the pay gap*.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 Becker, G.S.(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shop, Beverley(2005). *Globalization and women in the Japanese workforce*. New York: Routledge Curzon
- Brodie, J.(1994). Shifting the boundaries: gender and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in Bakker, I. (ed.) (1994) *The strategic silence: gender and economic policy* (46-60), London: Zed Books.
- Drucker, Peter F.(2000). 이재규 역(2001). *이노베이터의 조건*. 서울: 청림출판.
- Fukuyama, F.(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 Goldblatt, D., Held, D., McGrew, A. and Perraton, J.(1997).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nation state: shifting balances of power, *Alternatives* 22, 269-285.
- Hawthorne, Susan(2004). Wild politics: beyond globaliz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7(3), 243-259.
- Hirst, P. and Thompsen, G.(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 Hooper, C.(2000). Masculinities in transition: the case of globalization in Marchand, M. H. and Sission Runyan, A. (eds.)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sightings, sites and resistance*(39-73). London: Routledge.
- Marima, Helena C.P. Santos & Jorge Saba Arbache(2005). *Trade openness and gender discrimination*. University of Brasilia.
- Martin, Hans Peter & Schumann, Harald(1997). 강수들 역(1998). *세계화의 뒷*. 서울: 영림카디널.
- Meng, X. (1996). The economic position of women in Asia. *Asian Pacific Economic Literature*, 10, 23-41.
- Ohmae Kenichi (1995) *The border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 Perennial.
- Scholte, J. A.(2000).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Basingstoke: Palgrave.
- U.N.(1999). *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globalization, gender and work*. New York: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 U.N.(2005). *Equity between women and men*.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anddefinition.htm>
- UNESCAP(2005).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A statistical profile of the ESCAP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RISD(2005). *Gender equality: striving for justice in an unequal world*. N.Y.: United Nations.
- Warnier, Jean Pierre(2000). 주형일 역(2000). *문화의 세계화*. 서울: 한울.
- Waters, M. (1995).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 World Economic Forum(2005). *Women's empowerment: 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Geneva: World Economic Forum.